

##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나라 행보 관련 국민의식

### ■ 핵심 주변국과의 관계 평가 및 향후 방향성

- \_ 미국·일본과 가까워졌고 중국과 멀어져
- \_ 2030세대 : 남자, 일본 중시 / 여자, 중국·일본 경계
- \_ 4050세대, 중국 중시 / 60대이상, 중국·일본 모두 중시
- \_ 보수·중도층 미국 중시 vs 진보층 중국 중시

### ■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평가 및 독자 외교 가능성

- \_ 미·중·일 모두 자국 이익 중시하고, 우리 국익 못챙겨
- \_ 20대, 대미 외교 긍정적 / 30대, 모두 부정적
- \_ 4060세대 모두 부정적이고, 특히 4050세대 부정적
- \_ 모든 이념층 부정적인 가운데, 보수층 대미 외교만 긍정적
- \_ 한국 외교, '독자 외교'보다 '강대국과 보조 맞춰야' 우세

### ■ 향후 경제강국 전망 및 한국경제 전망

- \_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미국' 하락했으나 1위 유지
- \_ 향후 한국 전망, '지금보다 경제력 강한 국가 될 것'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6월 9일(금) ~ 6월 11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5\%$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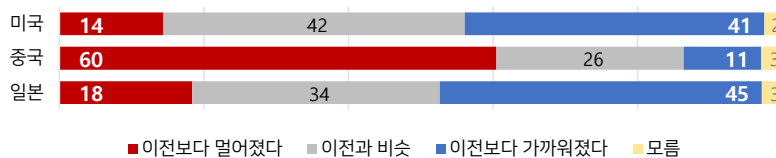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핵심 주변국과의 관계 평가 및 향후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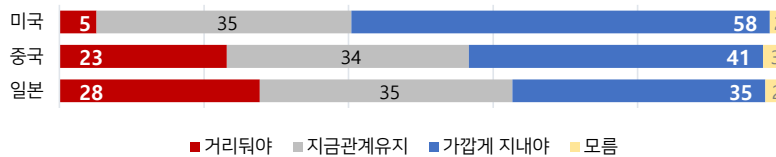
### 미국·일본과 가까워졌고 중국과 멀어져

- 우리 국민들은 이전과 비교할 때 미국·일본과 가까워졌고 중국과는 멀어졌다고 생각함
  -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다음 각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앞으로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다수임
  - 국가안보 생각시 ‘앞으로 가깝게 지내야 한다’ 미국 58% / 중국 41% / 일본 35%
-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때도,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함
  - 경제적 이익 생각시 ‘앞으로 가깝게 지내야 한다’ 미국 67% / 중국 56% / 일본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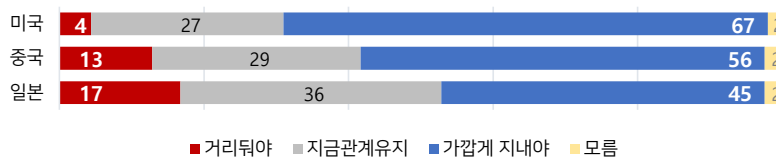
이전과 비교, 최근 관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국가안보 생각, 향후 관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경제적 이익 생각, 향후 관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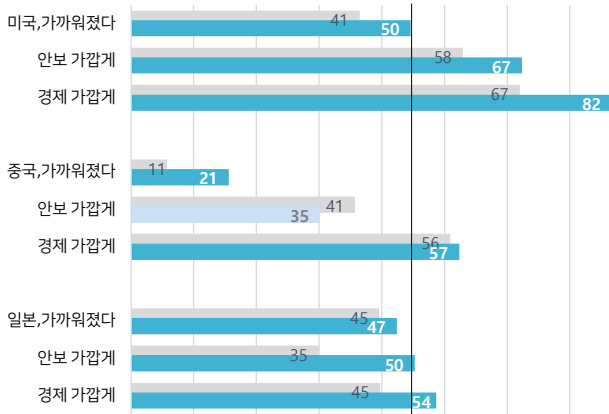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최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 재편 흐름이 본격화된 상황에, 국민들의 미국 선호도는 더욱 높아짐
  - : 이전에 비해 가까워졌고,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음
  - : 즉,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은 한미동맹 강화로 수렴되고 있음
- ☑ 흥미로운 지점은 중국에 대한 생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축인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 중국과 이전보다 멀어졌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함
  - :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생각은 다른 양상임
- ☑ 한편, 일본에 대한 생각은 다소 복잡한 모습임
  - : 일본과 이전보다 가까워졌고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때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함
  - : 하지만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가깝게 지내야 한다’ 35% vs ‘거리를 둬야 한다’ 28%로 차이가 크지 않음
  - : 이 역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는 여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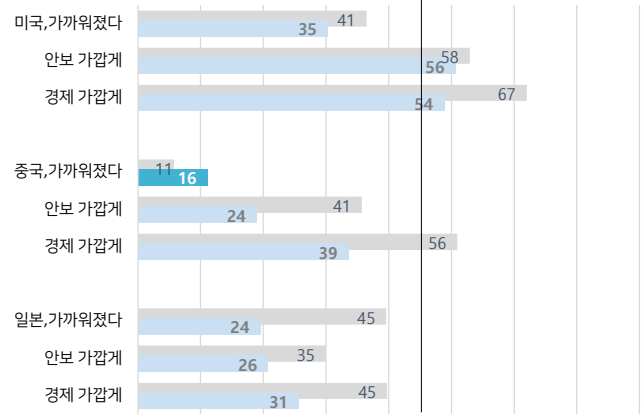
## □ 2030세대 : 남자, 일본 중시 / 여자, 중국·일본 경계

- 핵심 주변국과의 관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대한 태도는 남녀가 다른데, 남자는 일본과 안보·경제적으로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음
  - '일본과 안보 가깝게', 남자 20대 50% / 남자 30대 43% / 여자 20대 26% / 여자 30대 21%
  - '일본과 경제 가깝게', 남자 20대 54% / 남자 30대 52% / 여자 20대 31% / 여자 30대 44%
- 또한 남자 2030세대는 중국과 안보는 거리를 뒤편도 경제적으로는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이 우세한데 비해, 여자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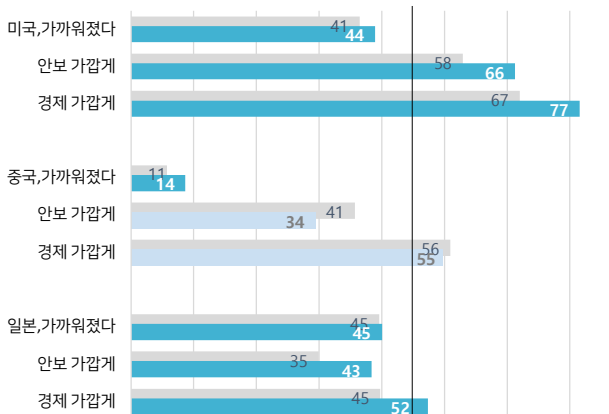
주변국 관계 인식 : 남자 18~20대 (2023.06.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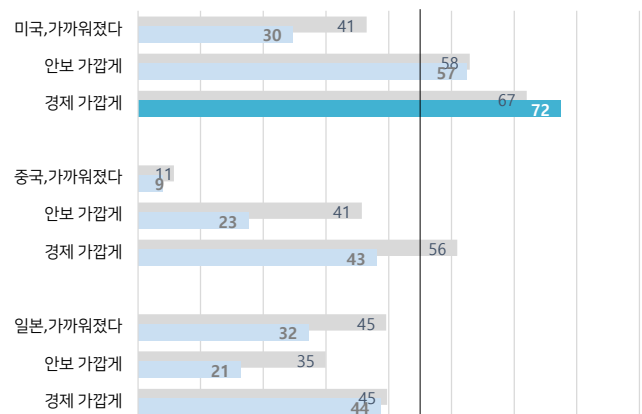
주변국 관계 인식 : 여자 18~20대 (2023.06.11조사,단위%)



주변국 관계 인식 : 남자 30대 (2023.06.11조사,단위%)



주변국 관계 인식 : 여자 30대 (2023.06.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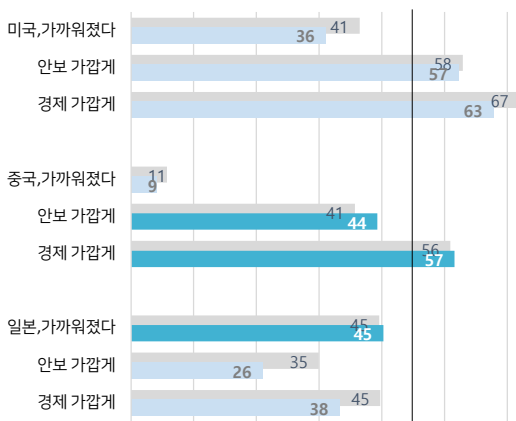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남·여 2030세대 모두 안보와 경제를 생각할 때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함
- ☑ 그러나 일본, 중국에 대한 생각은 남·여 간에 다른데, 남자 2030세대는 일본과의 안보·경제 관계를 중시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윤석열 정부에 동의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은 우려하는 모습임
- ☑ 여자 2030세대는 일본과 중국을 경계하는 모습이고, 두 나라에 대한 경계 수준도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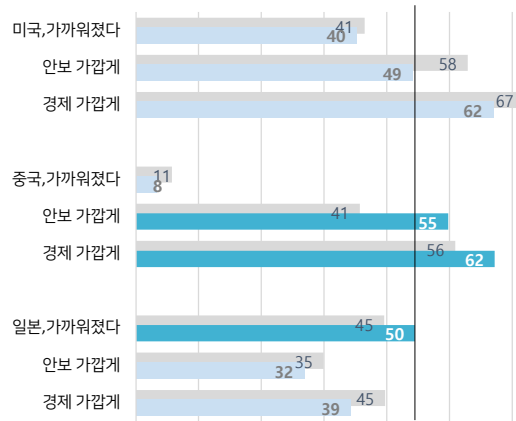
## □ 4050세대, 중국 중시 / 60대이상, 중국·일본 모두 중시

- 4060세대 역시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그러나 4050세대는 중국을 중시하고, 60대이상은 중국·일본 모두를 중시하는 차이를 보임
  - 40대, 안보 '중국과 가깝게' 44% vs '일본과 가깝게' 26% / 경제 '중국과 가깝게' 57% vs '일본과 가깝게' 38%
  - 50대, 안보 '중국과 가깝게' 55% vs '일본과 가깝게' 32% / 경제 '중국과 가깝게' 62% vs '일본과 가깝게' 39%
  - 60대, 안보 '중국과 가깝게' 49% vs '일본과 가깝게' 48% / 경제 '중국과 가깝게' 65% vs '일본과 가깝게' 56%
- 특히 50대의 경우 안보는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하고, 경제도 미국과 중국 모두를 중시하고 있음
  - 안보 '중국과 가깝게' 55% vs '미국과 가깝게' 49% / 경제 '중국과 가깝게' 62% vs '미국과 가깝게'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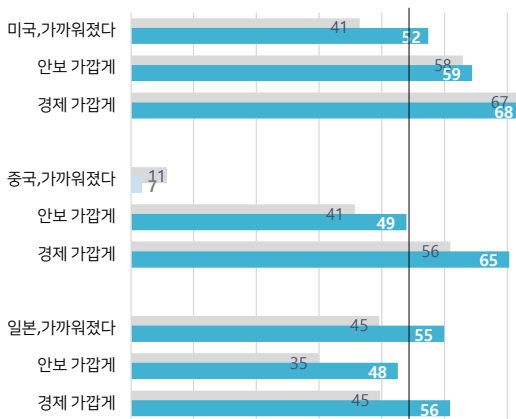
주변국 관계 인식 : 40대 (2023.06.11조사,단위%)



주변국 관계 인식 : 50대 (2023.06.11조사,단위%)



주변국 관계 인식 : 60대이상 (2023.06.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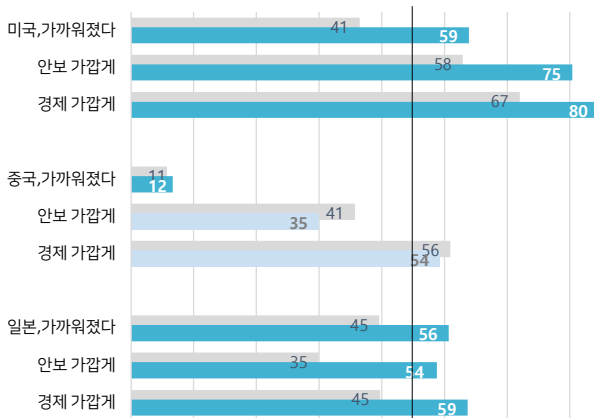
### Kstat Point

- ☑ 4050세대는 중국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안보와 경제 모두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함
  - : 이들 4050세대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양상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 또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대로 분석됨
- ☑ 60대이상은 미국을 가장 중시하는 가운데 중국·일본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해서는 안된다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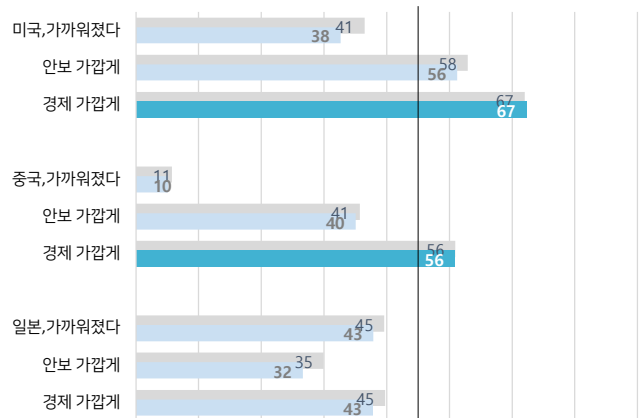
## □ 보수·중도층 미국 중시 vs 진보층 중국 중시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과 중도층은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비해, 진보층은 근소한 차이로 중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
  - 보수층, 안보 '미국과 가깝게' 75% vs '중국과 가깝게' 35% / 경제 '미국과 가깝게' 80% vs '중국과 가깝게' 54%
  - 중도층, 안보 '미국과 가깝게' 56% vs '중국과 가깝게' 40% / 경제 '미국과 가깝게' 67% vs '중국과 가깝게' 56%
  - 진보층, 안보 '미국과 가깝게' 44% vs '중국과 가깝게' 49% / 경제 '미국과 가깝게' 53% vs '중국과 가깝게' 58%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일본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경우 중국보다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도·진보층은 중국을 더 중시하는 차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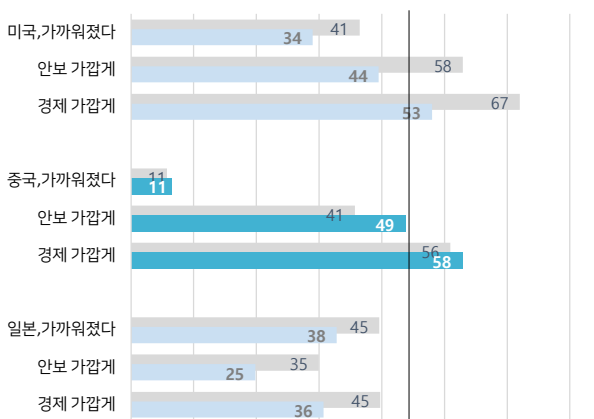
주변국 관계 인식 : 보수층 (2023.06.11조사,단위%)



주변국 관계 인식 : 중도층 (2023.06.11조사,단위%)



주변국 관계 인식 : 진보층 (2023.06.11조사,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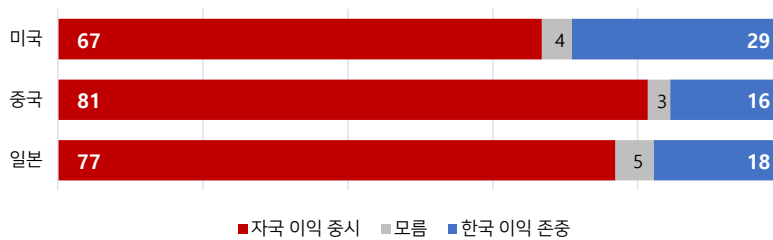
- ☑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함
  - ：남녀 2030세대와 60대이상, 그리고 보수층에서 특히 강함
  - ：그러나 50대와 진보층은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우세한 차이를 보임
- ☑ 일본에 대해서는 남자 2030세대와 보수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계층은 일본보다 중국을 중시함
  - ：다만, 여자 2030세대는 예외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모두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경계하고 있음
- ☑ 이렇게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국민 다수는 비판적인 것으로 분석됨

##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평가와 독자 외교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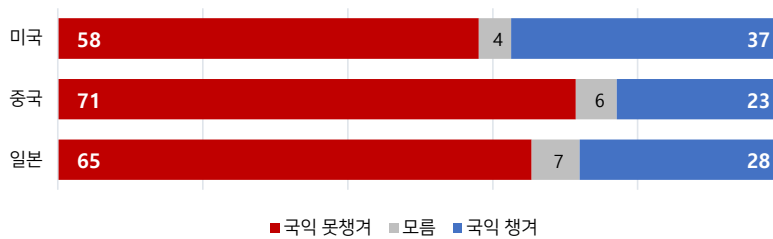
### 미·중·일 모두 자국 이익 중시하고, 우리 국익 못챙겨

- 우리 국민들은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의 이익을 존중하기보다 자국 이익을 중시한다고 생각함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각 국가들이 우리 한국과 외교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중국이 가장 자국 이익을 중시하고(81%), 다음은 일본(77%), 미국(67%) 순으로 응답함
- 또한, 우리 정부는 각 국가와 외교시 국익을 못 챙기고 있다고 생각함
  -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각각의 국가와 외교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중국과의 외교에서 가장 국익을 못 챙기고(71%), 다음은 일본(65%), 미국(58%) 순으로 나타남

주변국, 대 한국 외교 평가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우리 정부 각국과의 외교 평가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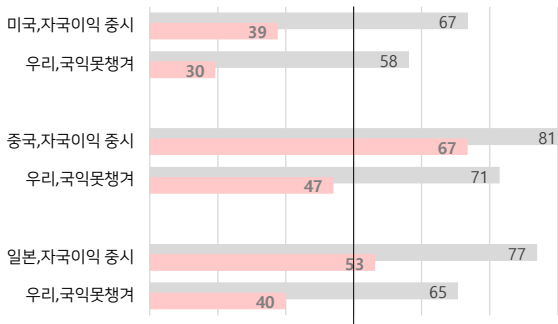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들은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주변국이 우리나라와 외교를 할 때, 한국의 이익을 존중하기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고 생각함
  - : 가장 우방으로 평가받는 미국이 그나마 한국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비중이 29%일 뿐, 중국과 일본은 각각 16%, 18%에 그침
- ☑ 또한 우리 정부가 이들 국가와 외교를 할 때 국익을 못 챙기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임
  - : 윤석열 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 국민 다수가 비판적인 것으로 보임
  -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익을 옹호하고, 실질적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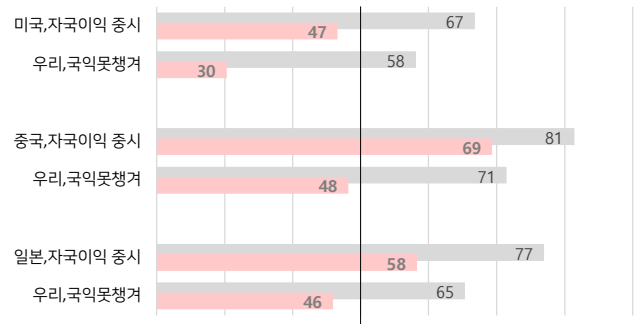
## □ 20대, 대미 외교 긍정적 / 30대, 모두 부정적

-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및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대체로 미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30대는 미국·중국·일본 모두에 부정적임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미국, 자국이익 중시’ 남자 20대 39% / 여자 20대 47% / 남자 30대 56% / 여자 30대 63%
  - ‘대미외교, 국익 못 챙겨’ 남자 20대 30% / 여자 20대 30% / 남자 30대 57% / 여자 30대 67%
- 또한 중국, 일본의 대 한국 외교 및 우리 정부 외교에 대해서도 20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임
  - 특히 우리 정부의 외교에 대해 국민전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부정평가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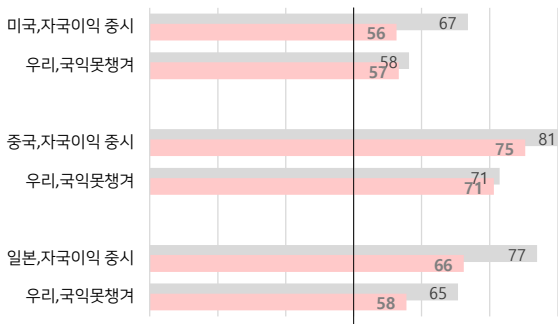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남자 18~2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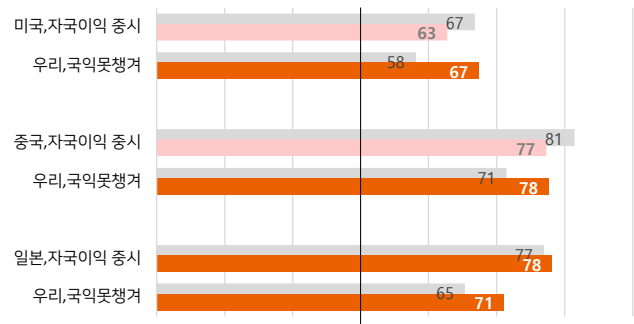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여자 18~20대 (단위%)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남자 30대 (단위%)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여자 30대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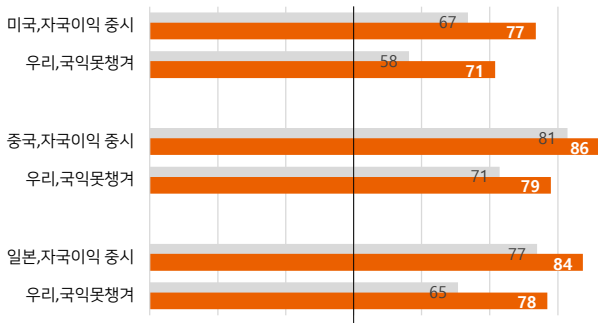
- ☑ 2030세대는 앞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음
- ☑ 그러나 미국의 대 한국 외교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에 대해 20대는 긍정적인데 비해 30대는 부정적임 : 특히 30대 여성이 가장 부정적인데, ‘우리, 국익 못 챙겨’ 의견이 67%로 국민 전체보다 높음
- ☑ 또한 20대는 우리 정부의 중국·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보다 부정적 의견이 매우 낮는데 비해, 30대는 국민 전체보다 소폭 낮은 차이를 보임
- ☑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에 긍정적인 세대는 20대이고, 대중 및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세대는 20대인 것으로 분석됨 : 30대는 부정적이며, 특히 30대 여성은 대미 외교를 비롯해 대 중국, 대 일본 외교 모두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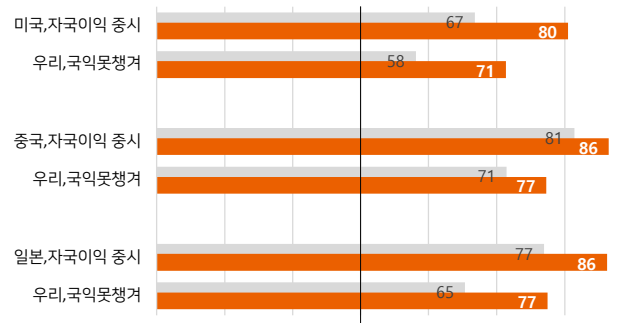
## □ 4060세대 모두 부정적이고, 특히 4050세대 부정적

- 4060세대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모두 자국의 이익만 중시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음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특히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의견은 매우 낮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음
  - ‘미국, 자국 이익 중시’, 40대 77% / 50대 80% / 60대이상 75%
- 또한 우리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가운데 4050세대가 더욱 부정적임
- 60대이상도 ‘우리 국익 못 챙겨’ 의견이 3개 국가 모두 50% 이상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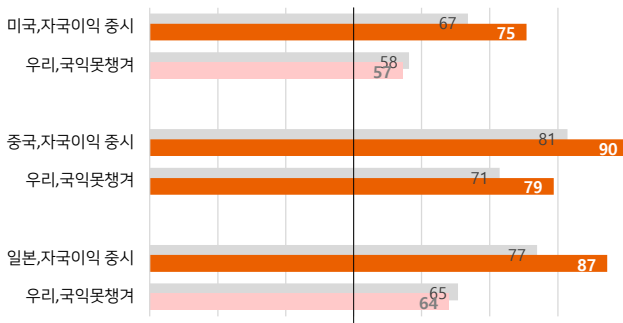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40대 (단위%)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50대 (단위%)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60대이상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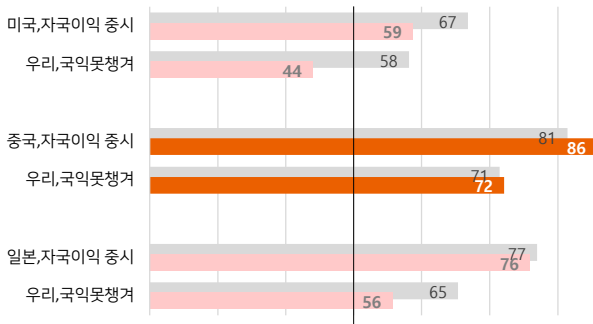
### Kstat Point

- ☑ 4060세대도 앞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미국의 대 한국 외교 및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 : 4050세대는 특히 높고, 60대이상도 50% 이상의 부정적 평가를 내림
- ☑ 한편, 4050세대는 중국과 안보 및 경제적으로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대 한국 외교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임
  - : 이는 중국의 대 한국 외교가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선차적 문제로 인식한 결과로 보임
-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국익 못 챙기고 있다’는 의견이 높은 점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
  - : 특히 60대이상도 대미 외교 및 대일 외교 모두 ‘국익 못 챙겨’ 의견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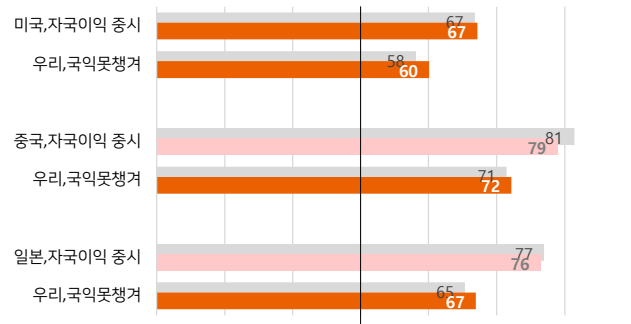
## □ 모든 이념층 부정적인 가운데, 보수층 대미 외교만 긍정적

- 주관적 이념층 모두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자국 이익만 중시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미국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미국, 자국 이익 중시’, 보수층 59% / 중도층 67% / 진보층 74%
- 우리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함
- 유일하게 보수층의 대미 외교 평가만 부정평가가 50% 미만(44%)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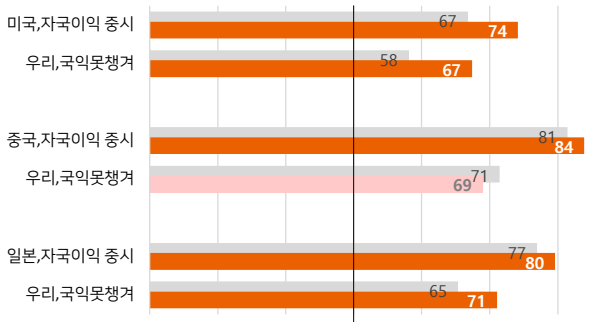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보수층 (단위%)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중도층 (단위%)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 우리 외교 평가 : 진보층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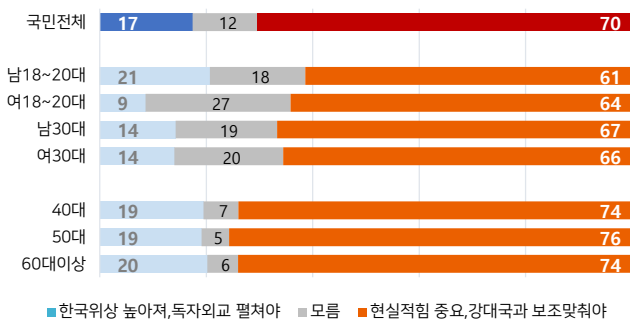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외교시 자국의 이익만 중시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 : 혈맹이라는 미국의 대 한국 외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20대만 예외적으로 긍정적임
- ☑ 또한 우리 정부가 이들 국가와 외교를 할때, 우리 국익을 못 챙기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음
  - : 이 지점에서도 20대의 대미 외교만 예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계층은 20대에 한정되어 있음
  -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보수층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 주목하고, 외교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익을 챙기는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임

## □ 한국 외교, '독자 외교'보다 '강대국과 보조 맞춰야'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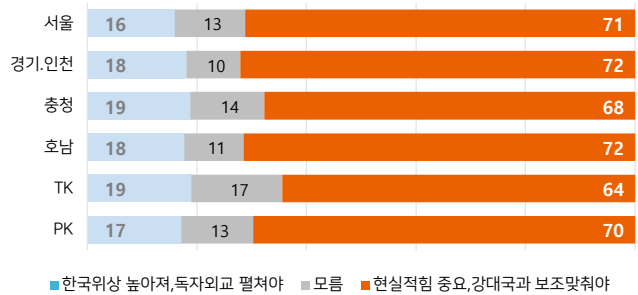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를 펼치기보다 강대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
  - “선생님은 다음 주장 중 어느 주장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장을 제시한 결과임
    - ①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졌기에, 이제는 독자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 ② 외교는 현실적인 힘이 중요하기에, 계속 강대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졌기에, 이제는 독자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은 17% 동의에 그치고, ‘외교는 현실적인 힘이 중요하기에, 계속 강대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 동의도는 70%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독자외교 펼쳐야’ 주장보다 ‘강대국과 보조 맞춰야’ 주장이 절대적으로 우세함

한국 외교 방향성 : 국민전체,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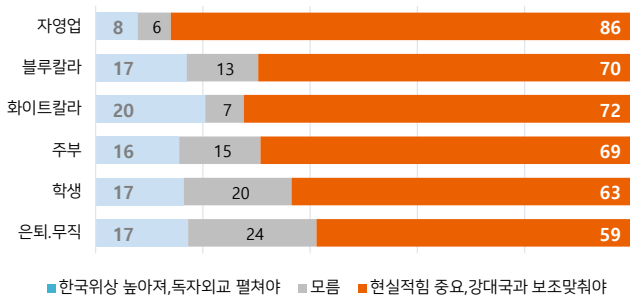
한국 외교 방향성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3.06.11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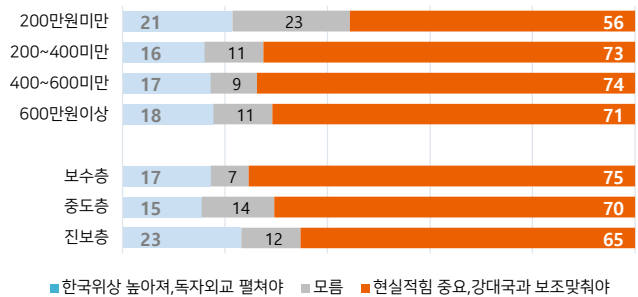
한국 외교 방향성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3.06.11조사, 단위:%)



한국 외교 방향성 : 소득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3.06.11조사,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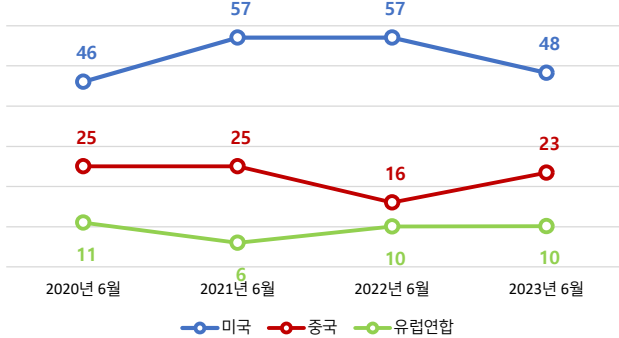
- ☑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많음
  - : 경제 및 외교전문가 일부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 우리 국익을 중시하는 ‘독자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 여기에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미국과 중국 어느 편도 들지 않는 25개국(T25개국 : 멕시코, 이스라엘, 터키,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독자 외교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활발해짐
- ☑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독자 외교보다 강대국과 보조 맞추는 외교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 이는 우리나라가 한 번도 ‘독자 외교’를 펼친 역사(국민적 경험)가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향후 경제강국 전망 및 한국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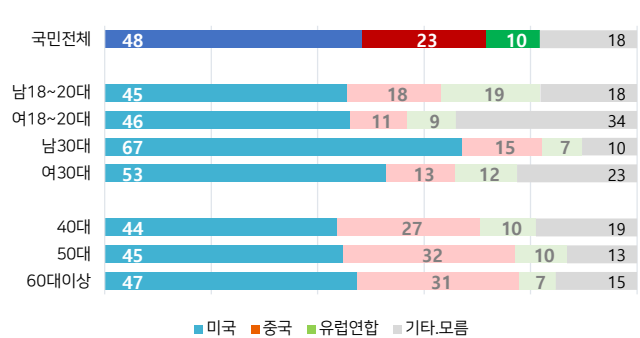
### □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미국' 하락했으나 1위 유지

-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이 향후 세계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앞으로 20년을 전망할 때, 다음 중 어느 국가가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국민 중 48%는 미국을 꼽았고, 다음은 중국(23%), 유럽연합(10%), 일본(2%) 순으로 응답함 (잘 모르겠다, 17%)
-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미국은 9%p 하락하고, 중국은 7%p 상승했으며, 유럽연합은 변동이 없었음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미국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녀 2030세대 △경기.인천, 충청 △화이트칼라 △보수층 등임
- 중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5060세대 △호남, TK △진보층 등임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전망 (자료:케이스렛,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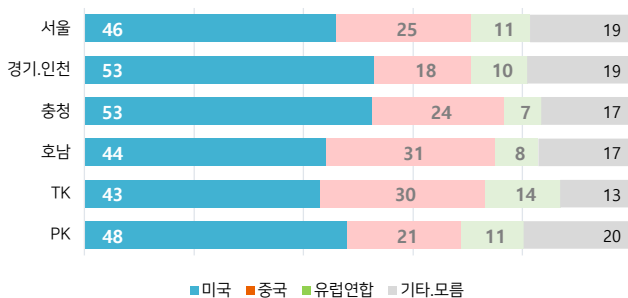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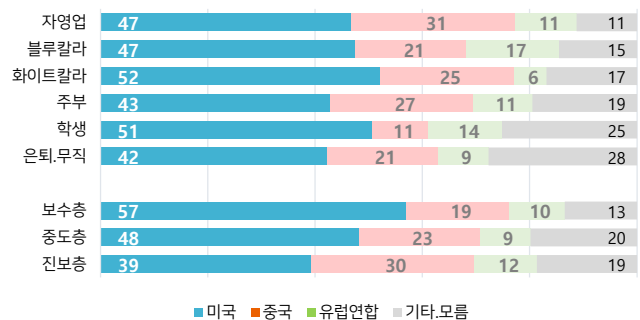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렛,2023.06.11조사,단위:%)



향후 세계 최고 경제강국 전망 : 직업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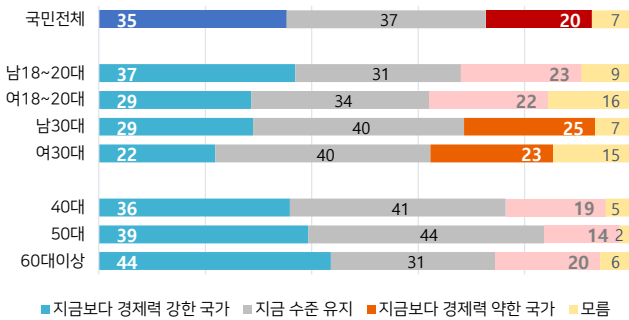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향후 세계 최고 경제 강국에 대한 전망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이 1위를 차지함
- ☑ 앞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4050세대와 진보층도 미국이 세계 최고 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 즉, 4050세대와 진보층이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세계 최고 강국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읽힘

## □ 향후 한국 전망, '지금보다 경제력 강한 국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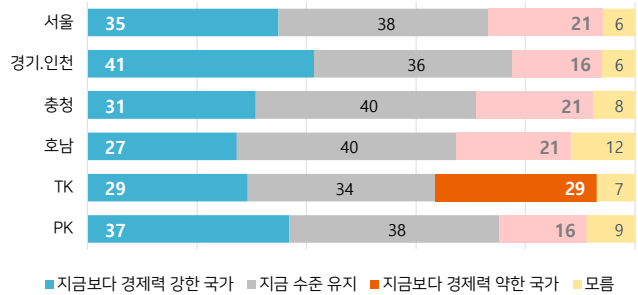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향후 한국이 '지금보다 경제력이 강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앞으로 20년을 전망할 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다음 같은 보기를 제시한 결과임
    - ① 지금보다 더 경제력이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 ②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③ 지금보다 더 경제력이 낮은 국가가 될 것이다
- '지금보다 경제력 강한 국가'가 35%이고, '지금 수준 유지' 37%, '지금보다 경제력 약한 국가' 20% 등으로 응답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경제력 강한 국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5060세대 △경기.인천, PK △자영업, 화이트칼라 △600만원 이상 소득층 △보수층 등임
- '지금보다 경제력 강한 국가'와 '지금보다 경제력 약한 국가'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남녀 30대 △TK 등임

향후 한국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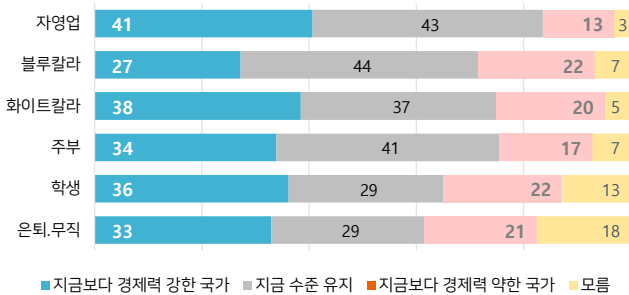
향후 한국 전망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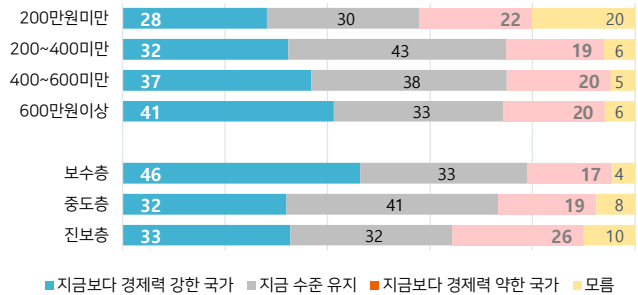
향후 한국 전망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향후 한국 전망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 Kstat Point

- ☑ 글로벌 질서 재편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향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 : 다만, '지금 수준 유지' 의견이 매우 높아, 마냥 긍정적이라기보다 신중한 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임
- ☑ 신중한 태도를 넘어 부정적 의견을 취한 계층도 있는데, 남녀 30대와 TK가 그들임
  - : 특히 남녀 30대의 경우 사회에 진출한 이후 막 자리를 잡은 세대이자, 향후 20년을 주도할 세대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의견임
  - : 이들은 앞서 주변국의 대 한국 외교와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세대로,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향후 한국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7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7호는 『세계적 전쟁가능성 및 대북한 의식』이라는 주제로 6월 29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6월 사회지표는 6월 22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